

일본불교의 母山  
靈峰 히에이산(比叡山)이  
12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세계의 보물로써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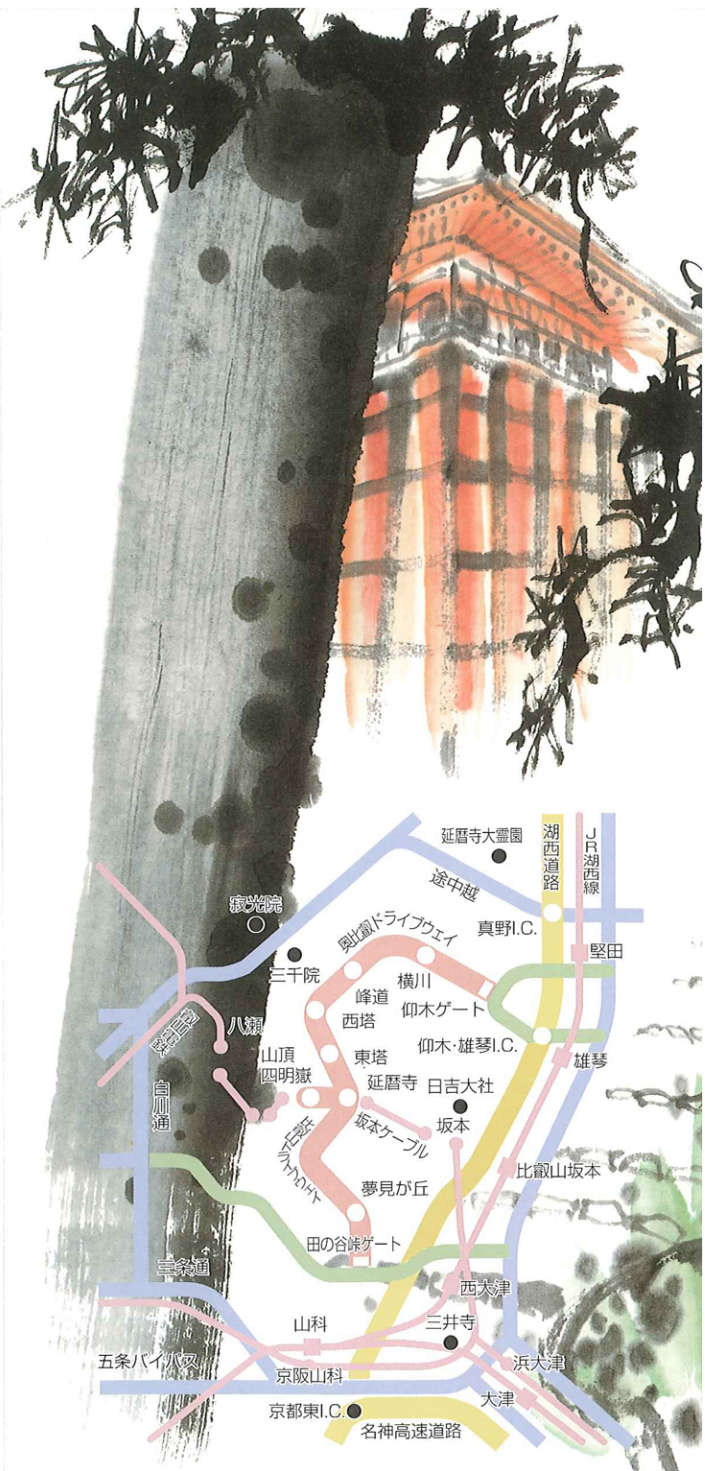
1994년 12월, 히에이산(比叡山) 엔라쿠지(延曆寺)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조약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덴교오다이시(傳教大師) 사이초오(最澄)스님이 산속에 초암을 만든 이후로, 많은 고승을 배출해온 이 초록의 명봉에서, 인류가 낮은 위대한 문화로써의 찬란한 빛이, 1200년의 역사를 넘어 지금 새롭게 빛나기 시작한 것이다.

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고, 종교, 자연, 문화, 인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화합해간다. 태고의 산림에 둘러싸여 있어서 都人들에게 「교토의 후지산」이라고 불려지던 수려한 산의 모습, 그 아름다운 지금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감동시키고 있다.

세상에 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산은 많지만, 산이라고 하면 히에이산만을 말한다.

1 지엔오소오(慈圓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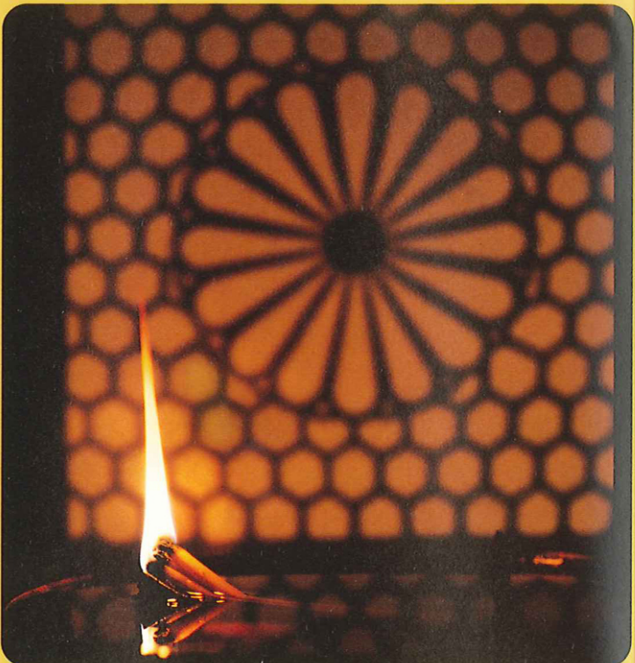
比叡山 横心 中堂



세계문화유산  
比叡山 히에이산

# 延曆寺

# 엔라쿠지



不滅의 法燈



# 토오토오

(東塔)

히에이산의 3탑의 중심으로, 엔라쿠지의 발상지이다. 히에이산의 본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주우도오(根本中堂)를 비롯해서 중요한 법당이 모여있다.



## 카이당인(戒壇院)

천태종의 스님들이 수계를 받는 중요한 법당. 傳敎大師의 입적후에 일본 천왕의 건립허가로, 제 1세 宗正 기쌍자쓰(義眞座主) 시대(828)에 창건되었다. 법당내에는 釋迦如來坐像과 文殊菩薩, 彌勒菩薩이 봉안되어 있다.



## 근본추우도오(根本中堂)

히에이산 제일의 법당으로, 일본 천태종의 종조인 傳敎大師가 788년에 이치조오시칸인(一乘止觀院)으로 창건한 것이다. 傳敎大師 본인이 조성했다고 전해지는 비불인 藥師如來가 봉안되어 있고, 불전에는 창건이래 '후메쓰노 호오토(不滅의 法燈)' 이 1200년의 시간을 넘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다.



## 고쿠호오텐(國寶殿)

엔라쿠지(延曆寺)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 중요문화재 외에 전국 각지에서 소장하고 있던 귀중한 보물 등, 히에이산의 역사를 알게 해주는데 빠질수 없는 많은 문화재를 한곳에 모아서 봉안하고 있다. 1992년에 요카와(横川)의 박물관에서 이관, 개설하였다.

## 다이코오도오(大講堂)

5년마다 열리는 法華大會를 비롯해서, 경전 강의를 하는 학문수행도량이다. 현재의 건물은 1956년에 화재로 소실된 후, 사카모토에 있던 찬불당을 옮겨놓은 것이다.



## 후케소오지인(法華總持院)

傳敎大師가 발원하고, 862년 지카쿠다이시(慈覺大師) 엔닌(圓仁)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태밀교의 근본도량이다. 오다노부나가(織田信長)의 토벌 이후 400년이 지난 1987년에 복원되었다. 토오토오(東塔), 칸쵸오도오(灌頂堂), 잣코오도오(寂光堂)를 총칭하여 후케소오지인(法華總持院)이라고 한다.





# 사이토오

(西塔)

토오토오(東塔)에서 북쪽으로 1km, 엔라쿠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釋迦堂을 중심으로 모든 법당이 위치해 있다. 아름다움 속에서도 장엄한 종교적 분위기가 감돈다.



## 니나이도오(にない堂)

훗케도오(法華堂), 조우교오도오(常行堂)이라는 같은 형태의 2개의 堂이, 연결 복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벤케이(辯慶)스님의 니나이도오'라고도 불린다. 법화와 염불이 일체라고 하는 히에이산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法華堂에서는 法華三昧, 常行堂에서는 常行三昧의 수행이 행해진다.

## 루리도오(瑠璃堂)

노부나가(信長)의 토벌을 피한 유일한 건물이다. 釋迦堂에서 黒谷의 세이류우지(靑龍寺)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고, 본존으로는 藥師瑠璃光如來가 모셔져 있다. 3칸4방의 작은 당이지만, 무로마치(室町)시대 말기의 건축양식을 현재까지 잘 전해주고 있다.



## 샤카도오(釋迦堂)

사이토오(西塔)의 중심이 되는 법당으로, 정식으로는 덴뵈오린도오(轉法輪堂)라고 한다. 현재의 건물은, 노부나가(信長)가 히에이산을 토벌한 뒤, 토오요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온조오지(園城寺)의 彌勒堂을 이전해서 손질한 것으로, 엔라쿠지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 본존은 傳敎大師가 직접 만든 釋迦如來立像으로, 법당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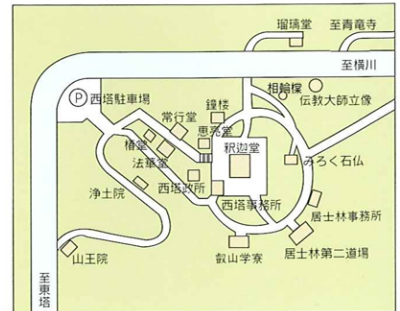


## 쯔바기도오(椿堂)

니나이도오(にない堂)의 바로 앞에 있는 작은 堂으로, 千手觀音を 봉안하고 있다. 쇼오토쿠타이시(聖德太子)가 입산했을 때, 지팡이로 쓰고 있던 동백나무가지를 꽂아놓고 돌아갔는데, 뿌리를 내려서 주변에 자라게 되었다는게 이름의 유래이다. 매년 4월에 타이시코오(太子法會)를 열고 있다.

## 조오도인(淨土院)

傳敎大師의 묘소로, 히에이산에서 가장 청정한 성역이다. 822년에 입적하신 대사는 이곳에 모셔졌다. 묘를 지키는 승려는 지싱(侍眞)이라고 부르고, 엄격하게 계율을 지켜야하며, 12년간 두문불출의 서원을 세워 수행정진 하면서 傳敎大師를 모신다.





# 요카와

(橫川)

西塔보다 더 북쪽으로 4km, 옛모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성지이다. 중심 당우인 요카와추우도오(橫川中堂)는 慈覺大師 圓仁스님에 의해 開創되었다.



## 요카와추우도오(橫川中堂)

요카와(橫川)의 중심 건물로, 슈료오곤인(首楞嚴院)이라고 불린다. 848년 慈覺大師 圓仁스님에 의해 開創되었다. 昭和 17년에 벼락으로 전소되었는데, 昭和 46년 傳敎大師의 1150 주기를 기념하여 복원하였다.



## 콘본노호오토오(根本如法塔)

慈覺大師 圓仁스님이, 큰나무 뿌리의 토굴 안에서 여법(如法) 사경을 한것에 연유한다. 탑안에는 여러 가지 불교경전을 서사(書寫)하여 봉안하고, 먼 후세에 전하기 위해 안치한 탑이다. 현재의 탑은 1925년에 再建되었다.



## 에신도오(惠心堂)

『往生要集』(오우조오오우슈우)을 저술하고, 淨土敎의 터전을 만든 惠心僧都源信이, 처음으로 焰불삼매행을 수행한 `念佛發祥地` 라는 비석이 세워져있다.



## 츠히코오인(定光院)

요카와(橫川)의 가장 북쪽인 香芳谷에 있다. 日蓮上人은 이곳을 거처로 약 12년간, 수학 구도의 나날을 보냈다.



## 시키키오도오(四季講堂)

967년, 무라카미천왕(村上天皇)의 칙명에 의해 사계절동안 법화경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 천태종 중흥조라고 불리는 지에다이시(慈惠大師) 료오겐(良源)의 거처였다고도 한다.

